

'77年度 世界 타이어 메이커 베스트 10

—Fortune誌「美國 및 世界의 鑛工業 500社」Ranking에서—

1. 「換時勢」에 依한 増減率

77年度 世界 타이어 메이커 베스트 10의 member는 76年度와 같다(表1 참조).

그러나 順位에는 多少變動이 있어, 前年 3位였던 Firestone社가 2位로 되었고, 2位였던 Dunlop-Pirelli 聯合이 3位로 되었다. 또 前年 6位인 General과 7位인 Goodrich도 서로 順位가 바뀌었다.

Dunlop-Pirelli 聯合이 3位로 轉落된 것은 賣出額이 겨우 前年比 1.4% 밖에 伸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pound/dollar 率이 pound 弱으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推測되고 있다.

Dunlop-Pirelli 聯合의 營業報告書에 의하면 同聯合의 77年度 賣出額은 20億2,000萬파운드(\$)
로, 前年의 19億2,100萬파운드에 比해 5.2% 伸張
되었다(Dunlop holding社의 賣出額은 13億6,100
萬파운드로 前年比 6.7%의 伸張, Pirelli社는 6
億 5,900萬파운드로 前年比 4.3% 伸張).

이와 같이 通貨의 換時勢에 따라서 自國通貨의 dollar에 對한 强弱이 賣出額·純利益을 增減시키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円”, “마르크”는 前年보다 增幅되고, 프랑스의 “프랑”, “리라”는 減幅되어 달려 換算이 되고 있으니 注意해 주기 바란다.

또 Goodrich社와 General社가 전도된 것은 76年 美國고무勞聯(URW)의 스트라이크에 Goodrich社의 勞組는 參加하였으나 General社의 勞組

는 不參하였으므로 同年賣出額에서 General社가 15% 強勢의 높은 伸張으로 Goodrich社를 앞서게 되었다. 이 反動이 77年度에 나타나 재차 Goodrich社가 앞서게 되어 從來의 順位를 되찾게 된 것이다.

다음에는 각項目마다 77年의 베스트 10社의 動靜을 살펴보기로 한다.

2. 美國勢는 76年 URW의 스트라이크

크反動으로 伸張

먼저 賣出額에 있어서는 美國勢 4社(Goodyear, Firestone, Uniroyal, Goodrich)와 Bridgestone, Continental의 2社가 10% 以上으로 伸張하였다고 한다.

이 중 美國勢 4社는 76年의 URW 長期 스트라이크의 影響이 77년에 나타나 10% 以上의 높은 伸張率을 보였다. 또 美國勢中에서 General은 前述한 理由로써, 77年은 逆으로 低伸張率을 나타내고 있다.

BS와 Conti의 兩社도 前述한 바와 같이 換率時勢에 依해 10% 以上의 높은 伸張率을 보였으나, 換率을 76年대로 하면 77年度 賣出額伸張率은 前年比 約 9%, 5% 정도이다.

한편 伸張率이 10% 미만인 Dunlop-Pirelli 聯合은 前述한 理由 때문에 겨우 1.4%의 伸張으로 나타났으나 同聯合의 實質的인 伸張率은 5%이다.

또 Michelin의 경우는 “프랑”과 “달려”가 比較的 同一步調로 變動되고 있으며, 同社가 77年에 10%未滿으로 伸張된 것은 同社가 美國內에 工

<表 1>

1977年度 世界Top100 미아커 上位 12社 經營指標(1)

資出額 順位 (前年)	会社名(国籍)	資出額(A)		純利益(B)		總資產(C)		自己資本(D)		従業員(E)	
		金額 (千달러) BS = 100	對前 年比 (%増減)	人數 (人) BS = 100	對前 年比 (%増減)						
1 (1)	Goodyear(美)	6,627,818	14.4	426.0	205,781	68.7	350.5	4,677,903	7.9	327.1	1,973,854
2 (3)	Firestone(美) ⁽¹⁾	4,426,900	12.4	284.5	110,200	14.8	187.7	3,395,700	4.1	237.4	1,618,100
3 (2)	Dunlop·Pirelli(英・伊) ⁽²⁾	4,232,765	1.4	272.1	n.a.	—	—	n.a.	—	—	169,250
4 (4)	Michelin(佛)	3,548,839	4.6	228.1	123,658	▲21.3	210.6	4,723,156	16.1	330.2	1,265,421
5 (5)	Uniroyal(美)	2,581,927	11.5	166.0	34,791	72.8	59.3	1,745,834	6.9	122.1	644,826
6 (7)	B.F.Goodrich(美)	2,222,518	11.4	142.9	60,103	280.6	102.4	1,698,530	8.3	118.8	784,504
7 (6)	General(美) ⁽³⁾	2,110,051	4.3	135.6	115,987	10.8	197.5	1,587,324	2.9	111.0	872,960
8 (8)	Bridgestone(日) ⁽³⁾⁽⁴⁾	1,555,840	19.1	100.0	58,718	21.8	100.0	1,430,310	26.0	100.0	532,509
9 (9)	Continental(西獨)	842,280	13.6	54.1	6,293	34.2	10.7	682,205	9.2	47.7	203,262
10 (10)	Dunlop·Australia(澳) ⁽⁵⁾	625,090	1.4	40.2	19,548	6.7	33.3	386,142	2.0	27.0	178,076
11 (11)	横浜ゴム(日) ⁽⁶⁾⁽⁷⁾	554,808	16.9	35.7	▲12,271	▲501.3	—	632,806	20.7	44.2	73,284
12 (12)	Armstrong(美) ⁽⁸⁾	367,099	11.4	23.6	14,898	72.9	25.4	282,769	10.4	19.8	119,978

(1) 會計年度 : (前年)11.1~10.31

(2) 會計年度 : (前年)12.1~11.30

(3) 換算率 : 損益勘定 ₩ 1.00 = ¥257.38 ('76年度 ₩ 296.74)

資本勘定 ₩ 1.00 = ¥239.81 ('76年度 ₩ 293.29)

(4) 5社連結 : Singapore BS, Thai BS, BS Cycle, BS imperial,

Bridgestone tire

(5) 會計年度 : (前年)7.1~6.30

(6) 稽會社型 (7) 會計年度 : (前年)10.1~9.30

場을 갖고 있으며 76年 URW의 스트라이크로 大幅的으로 伸張되었던 反動이 77년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推測된다.

3. FS社의 利益低調는 缺陷 타이어 때문인지?

純利益에 對해서 살펴보면, Goodrich, Uniroyal, Goodyear의 三社가 높은 伸張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76年の 스트라이크의 反撫値이다. 다만, Goodrich가 2.8倍의 높은 利益을 올린 것은 스트라이크의 反撫値外에 同社가 數年間 繼續 不採算部門, 不採算工場, 不採算子會社 등을 폐기해온 效果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Firestone은 賣出額에서도 76年の 스트라이크의 反撫値가 나타나 있으나, 純利益面에서는 스트라이크의 反撫値가 Goodyear, Uniroyal 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이 點에 對해서 同社는 「不採算(Bias tire)工場의 Scrap費用을 計上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株主에게 說明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오히려 缺陷타이어(乘用車用 steel radial tire)의 回收費 때문에 아닌가 생각된다.

『Rubber World誌』는 4月號에서 「FS는 政府의 回收命令에 의해 77년에 1億4,100萬달러의 損害를 보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莫大한 賣出損失로 推測한다면 利益面에서도 상당한 影響을 받았을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또 BS나 Continental도 10% 以上의 伸張率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數次 說明된 바와 같이 換時勢에 따른 影響이 크게 미치므로 다만, Continental의 경우를 보면 마르크高를 감안하더라도 同社의 再整備된 經營方針의 效果가 徐徐히 나타나고 있음이 數字上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同社는 數年間狀態가 좋지 않았으나 利益面에서는 76年부터 向上되기 시작하여 77년에는 賣出額과 純利益이 다같이 向上되고 있다.

또 Michelin의 純利益이 前年보다 21.3%나 下廻한 것은 76年에 URW의 스트라이크에 依해大幅的으로 利益을 늘인 것과 76年에 換差益이

생긴 影響 때문이다.

다음에 從業員數의 動向을 보면 各社 모두 從業員의 伸張率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減少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世界的으로 이와 같은 傾向이 나타나 있는 것은, 타이어工業이 앞으로는 低伸張率로 밖에 期待되지 않으므로 可及的 人員增加를 하지 않고 生產性을 높이자는 方向으로 모든 會社가 다같이 指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推測된다.

사실상 美國의 메이커는 래디얼化에 遲延되고 있으므로 從來의 bias工場은 점점 scrap化하고, 新稅의 래디얼工場을 建設하고 있다. 이와 같은 傾向은 위에서 말한 從業員數의 趨勢要因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Michelin의 從業員數는 늘어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것은 77年부터 同社의 美國內의 그린빌工場이 本格적으로稼動하기始作했기 때문이다. 從業員規模로 보면 同社가 Firestone社와 같은 規模로 되어 있다.

4. 収益性에서는 General, 生產性 에서는 BS

収益性에 對해서 보면(表2 참조), 먼저 總資本(產) 利益率에서는 General이 7.3%로 top이며, 다음이 Dunlop · Australia가 5.1%, Goodyear가 4.4%, BS가 4.1%의 順으로 되어 있다.

또 賣出額純利益率에서도 General이 5.5%로 top이며, 다음이 BS 3.8%, Michelin이 3.5%, Goodyear, Dunlop Australia가 각각 3.1% 쯤이다.

그리고 總資本(產)回轉率을 보면 Dunlop-Australia가 1.62回, Uniroyal이 1.48回, Goodyear가 1.42回, General이 1.33回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結果로 볼 때 収益性이 가장 좋은 會社는 General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生產性을 보면 從業員 1人當 賣出額이 BS가 70,994달러로 top이며, 다음이 Goodrich가 56,234달러, General이 53,273달러, Uniroyal이 48,312달러의 順으로 되어 있다.

從業員 1人當 純利益에서는 General이 2,928달러로 top이며, 다음 BS가 2679달러, Goodrich

<表 2> 1977年度 世界 타이어 메이커 上位 12社 經營指標(2)<收益性, 生産性, 資本蓄積指標>

메이커名(國籍)	總資本 利益率 (B)/(C)		賣出額 利益率 (B)/(A)		總回資轉 本率 (A)/(C)		從業員 1人 當賣出額 (A)/(E)		從業員 1人 當純利益 (B)/(E)		自己資本 比率 (D)/(C)	
	'77	'76	'77	'76	'77	'76	'77	'76	'77	'76	'77	'76
Goodyear(美)	% 4.4	% 2.8	% 3.1	% 2.1	回 1.42	回 1.34	달러 43,350	달러 38,288	달러 1,346	달러 806	% 42.2	% 42.9
Firestone(美) ⁽¹⁾	3.2	2.9	2.5	2.4	1.30	1.21	38,495	34,859	958	850	47.7	48.1
Dunlop·Pirelli(英·伊)	n. a.	n. a.	n. a.	n. a.	n. a.	n. a.	25,009	25,410	n. a.	n. a.	n. a.	n. a.
Michelin(佛)	2.6	3.9	3.5	4.6	0.75	0.83	30,859	30,857	1,075	1,429	26.8	23.8
Uniroyal(美)	2.0	1.2	1.3	0.9	1.48	1.42	48,312	42,852	651	373	36.9	38.5
BF Goodrich(美)	3.5	1.0	2.7	0.8	1.31	1.27	56,234	50,889	1,521	403	46.2	47.2
General(美) ⁽²⁾	7.3	6.8	5.5	5.2	1.33	1.31	53,273	50,390	2,928	2,608	55.0	50.9
Bridgestone(日) ⁽³⁾	4.1	4.2	3.8	3.7	1.09	1.15	70,994	58,268	2,679	2,149	37.2	37.8
Continental(西獨)	0.9	0.8	0.7	0.6	1.23	1.19	34,592	30,094	258	190	29.8	33.4
Dunlop·Australia(豪) ⁽⁴⁾	5.1	4.8	3.1	3.0	1.62	1.63	32,465	29,851	1,015	886	46.1	49.0
橫濱고무(日) ⁽³⁾⁽⁴⁾	—	0.6	—	0.6	0.88	0.91	59,408	49,102	—	316	11.6	14.1
Armstrong(美)	5.3	3.4	4.1	2.6	1.30	1.29	64,927	61,414	2,635	1,607	42.4	42.1

資料 : The Fortune Directory(各年 ranking list)

註 : (1)~(6) 經營指標(1)의 註와 同一

<表 3>

타이어 部門(타이어 關連用品 포함) 賣出額 베스트 10

	타이어 部門(賣出額)		總賣出額		타이어 部門比率	
	'77	'76	'77	'76	'77	'76
1. Goodyear	(萬달러) 557,910	(萬달러) 483,400	(萬달러) 662,782	(萬달러) 579,149	(%) 84.2	(%) 83.5
2. Firestone	351,800	314,200	442,690	393,911	79.5	79.8
3. Michelin	319,400	305,400	354,884	339,422	90.0	90.0
4. Dunlop·Pirelli	230,262	229,500	423,277	417,233	54.4	55.0
5. Uniroyal	147,170	131,946	258,193	231,484	57.0	57.0
6. Bridgestone	119,800	100,604	155,584	130,655	77.0	77.0
7. Goodrich	103,150	88,330	222,252	199,595	46.4	44.0
8. General	85,643	81,058	211,005	202,255	40.6	40.1
9. Continental	46,330	40,763	84,228	74,115	55.0	55.0
10. 橫濱 고무	44,942	38,452	55,481	47,472	82.0	81.6
11. Dunlop·Australia	25,004	24,663	62,509	61,657	40.0	40.0

註 (1) Goodyear, Firestone, Goodrich, General, 橫濱고무의 타이어 部門比率은 決算報告書 등의 確定數字.

(2) Dunlop·Pirelli聯合의 타이어 部門賣出額은 約11億파운드, 따라서 타이어 部門比率은 約54.4%이다.

(3) Michelin, Bridgestone, Continental, Dunlop·Australia의 타이어 部門은 推定數字.

(4) Uniroyal社의 77년의 타이어 部門比率은 不明이므로 71~75년의 同社의 平均值.

가 1521달러, Goodyear가 1346달러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結果로 볼 때 生產性에서는 BS가 “ 가장 生產性이 높은 會社”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自己資本比率을 보면, 世界的인 企業은 모두 自己資本比率이 높다. 즉 「自己의 돈을 基

本으로 하여 經營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General은 55%로 過半數를 超過하고 있으며 다음에 Firestone이 47.7%, Goodrich가 46.2%, Dunlop·Australia가 46.1%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意外로 Michelin이 自己資本比率이 낮은 것은, 7年間에 프랑스本國을 為始하여 유

법에 20개工場을 新設하고 또 캐나다, 美國에서 7개工場을 新設한 까닭으로 借入金이 增加되었기 때문이라고 推測되고 있다.

그러나 同社의 自己資本比率은 前年보다 增加되었으며 美國의 工場들이 順調롭게 積動되고 있다고 한다.

5. 타이어部門의 賣出額順位는 不動

表3은 各社의 營業報告書에 의해 타이어 및 타이어 關聯用品의 賣出을 조사하여 타이어 部門賣出額 베스트 10을 정리한 것이다(營業報告書가 入手되지 않은 메이커는 Fortune誌에서 타이어部門의 賣出比率을 推定하여 타이어部門의 賣出額을 逆算하였다).

이 表에 依하면 타이어部門의 賣出額이 많은 메이커는 1位가 Goodyear, 2位가 Firestone, 3位가 Michelin, 4位가 Dunlop·Pirelli聯合, 5位가 Uniroyal, 6位가 Bridgestone, 7位가 Goodrich, 8位

General, 9位 Continental, 10位 橫浜고무의 順으로 前年과 같다.

이 表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unlop·Pirelli聯合, Uniroyal, Goodrich, General, Continental, Dunlop-Australia는 타이어部門比率이 50%前後로서 타이어를 中心으로 한 綜合고무 메이커 또는 綜合化學 메이커로 볼 수 있고, 한편 Goodyear, Firestone, Michelin, BS, 橫浜고무는 타이어 메이커쪽이 比重이 크다.

타이어 메이커도 요지음 래디얼 타이어 時代를 맞이해서 綜合고무 메이커나 綜合化學 메이커로 脱皮하려는 企業(Dunlop, Goodrich 등)과 從來와 같이 타이어 메이커로서 伸張하려는 企業(특히 Michelin)의 二極으로 分化되기 始作했다고 한다.

실은 美國市場을 둘러싼 美國 5大社(big 5)와 Michelin의 싸움은 二極化傾向에 技巧를 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끝으로 只今까지의 5年間(73~77年), 10年間

1977年度 世界 타이어 메이커 上位 12社 經營指標(3)<成長性指標>

<表 4>

單位: 年率 %

메이커名(國籍)	過去 5年間 年平均伸張率 (73~77年)					過去 10年間 年平均伸張率 (68~77年)				
	賣出額	純利益	總資產	自己資本	從業員數	賣出額	純利益	總資產	自己資本	從業員數
Goodyear(美)	10.2	1.3	6.1	4.4	1.0	9.6	4.9	8.4	6.4	3.0
Firestone(美)	10.5	▲4.1	6.5	5.3	1.1	9.0	0.7	3.2	5.8	1.9
Dunlop·Pirelli(英·伊)	9.1	n.a.	n.a.	n.a.	▲0.1	n.a. (*)	n.a. (*)	n.a. (*)	n.a. (*)	n.a. (*)
Michelin(佛)	16.7 (*)	n.a.	n.a.	n.a.	5.3	16.5	n.a.	n.a.	n.a.	n.a.
Uniroyal(美)	7.5	▲5.7	3.3	2.2	▲3.7	7.4	0.5	5.6	3.9	▲2.0
B.F. Goodrich(美)	8.1	4.2	3.9	3.8	▲4.9	8.2	5.5	6.5	4.0	▲1.5
General(美)	14.1	9.4	9.4	10.0	1.2	8.3	13.5	7.9	9.4	▲0.4
Bridgestone(日)	18.1	9.1	18.0	18.6	2.1	19.2 (*)	14.9 (*)	21.0 (*)	20.0 (*)	5.4 (*)
Continental(西獨)	14.0 (*)	—	10.8	4.8	▲3.5	10.8	n.a.	n.a.	n.a.	n.a.
Dunlop-Australia(澳)	8.9	11.3	4.0	4.4	▲4.1	n.a. (10)	n.a. (10)	n.a. (10)	n.a. (10)	n.a. (10)
橫濱 고무(日)	n.a. (10)	n.a. (10)	n.a. (10)	n.a. (10)	n.a. (10)	n.a. (10)	n.a. (10)	n.a. (10)	n.a. (10)	n.a. (10)
Armstrong(美)	11.6	14.9	7.0	7.7	0.6	8.4	7.4	6.8	6.4	0.7

資料 : The Fortune Directory(各年 ranking list)

註 (6) Union結成 '71년에 대 해 算出不可

(7) 1972年數値은 Fortune誌推定

(8) 1967년은 Fortune誌에 들어 있지 않았

으나當時同誌에 提出된 資料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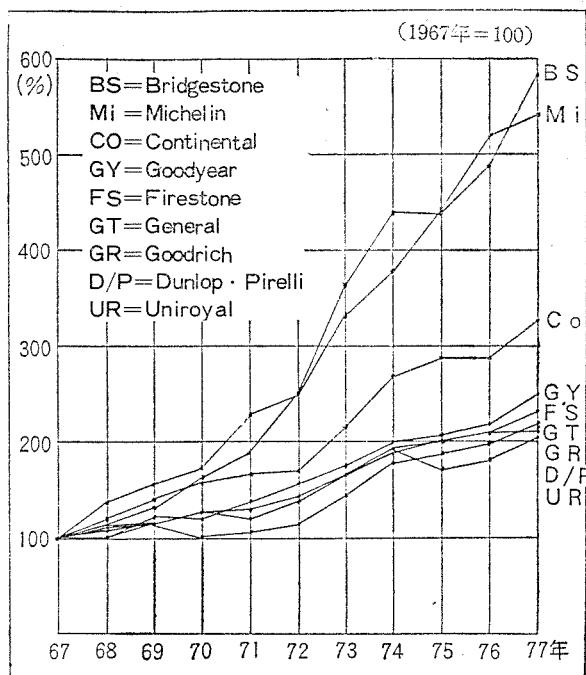
(9) 1972年은 缺損計上

(10) 基準年에 ranking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算出不可.

(68~77年)의 各社마다의 年間平均伸張率을 表 4에 표시하였다.

이 5年間의 賣出額伸張率이 가장 높았던 것은 BS 18.1%이며, 다음이 Michelin 16.7%, 以下 General 14.1%, Continental 14.0%의 順이다. 또 10年間 賣出額의 伸張率이 제일 높았던 것도 BS로 19.2%이며, 다음이 Michelin으로 16.5%, 이다. 以下 Continental 10.8%, 다음이 Goodyear 9.6%, Firestone 9.0%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伸張率에서는 BS와 Michelin이 심한 競爭을 하고 있으며 67년의 賣出額을 100으로 하여 上位 9社의 伸張率을 그램프로 表示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世界 타이어 메이커 賣出額伸張率의 推移



- 新市場의 開拓과 對外貿易의 多變化에 주력하면서 長期的인 資源確保를 위한 努力은 強化하는 한편, 開發途上國과의 經濟 및 技術協力を 擴大해 나가겠다.
- 自主精神은 國家發展의 原動力이며 文化創造의 源泉이다. 즉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의 主人이며 歷史의 主體라는 認識을 투철히 할 때 國家가 발전하고 훌륭한 文化가 創造되는 것이다.
- 純政刷新은 公務員뿐만 아니라 各界指導層의 솔선수범하에 汎國民의in 社會 정화운동으로 확산되고 社會通念으로 生活화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 우리 모두 維新理念으로 굳게 團結하고 勤勉, 自助, 協同의 새마을 精神으로 國力培養에 拍車를 가함으로써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새 歷史를 창조하기 위한 힘찬 前進을 계속하자.